경제혁신 3개년 계획 | 경제의 틀을 바꾸면 미래가 달라집니다. | 대한민국 재도약의 힘, 창조경제

경제혁신 희망의 새시대

산업통상자원부 **보도참고자료**

http://www.motie.go.kr

12. 13(화) 오후 14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배포일시	2016. 12. 13. (화)	담당부서	전력진흥과
담당과장	신용민 과장(044-203-5260)	담 당 자	김양지 서기관(044-203-5262) 김태현 사무관(044-203-5264)

누진제 개편으로 주택용 동·하계 전기요금 부담 15% 경감

- 초중고교, 유치원 전기요금 20% 할인, 취약계층 할인규모 2배 확대

- 전기소비 20% 절감시 10% 요금 추가할인, 친환경 투자에 2천억원 규모 지원

⇒ 산업부, 한전이 제출한 전기공급약관 변경안 최종인가

1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주형환, 이하 산업부)는 한국전력공사(이하 한전)가 **이사회 의결**을 거쳐 제출한 주택용 누진제 개편을 포함한 **전기공급약관 변경(안)**을 **관계부처(기재부) 협의, 전기위원회 심의**를 거쳐 '16.12.13(화) **최종인가**하였음

2 금번 전기요금 체계 개편은 지난 4개월간 8차례 당정 T/F('16.8.18~11.23), 3차례 산업위 보고(11.24, 12.6, 12.8), 공청회(11.28) 등을 통해 **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**되었으며, **❶주택용 누진제 완화, ❷사회적 배려계층 할인 확대, ❸교육용 요금 할인 확대, ❹친환경 투자 요금할인 인센티브 등 주요 내용**은 다음과 같음

❶ 주택용 누진제 완화

□ 3가지 개편대안 중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**3안인 절충안**을 채택

* 3가지 누진제 개편 대안(별첨) : (1안) 구간, 요율 등에서 누진제 원리에 근접한 대안, (2안) 현 체제를 최대한 유지하는 대안, (3안) 1안과 2안의 장점을 절충한 대안

○ **(누진단계 및 배수)** '04년 이후 12년 동안 유지해 온 6단계 11.7배수의 누진구조를 **3단계 3배수로 대폭 완화**

○ **(누진구간)** 그동안 변화한 소비패턴과 가구분포를 반영하여 기존에 100kWh 단위로 세분화된 구간을 **200kWh 단위로 확대**

【 누진 구간 】

0~200kWh (1단계)	201~400kWh (2단계)	401kWh 이상 (3단계)
필수사용 구간[1]	평균사용 구간[2]	다소비 구간

1) 전기소비 증가 등으로 200kWh 수준까지 확대
2) 4인가구 평균소비량은 350kWh, 전체 가구의 94%가 400kWh이하 소비

○ **(누진요율)** 최고단계 요율을 **280.6원/kWh(기존 4단계 수준)으로 인하**하여, 냉난방기 가동에 따른 동·하계 전기요금 부담을 대폭 완화

【 개편전후 주택용 요금표 】

구 간		기본요금 (원/호)	전력량요금 (원/kWh)
1	100kWh 이하	410	60.7
2	101~200kWh	910	125.9
3	201~300kWh	1,600	187.9
4	301~400kWh	3,850	280.6
5	401~500kWh	7,300	417.7
6	500kWh 초과	12,940	709.5

⇨ 개편

구 간		기본요금 (원/호)	전력량요금 (원/kWh)
1	200kWh 이하	910	93.3
2	201~400kWh	1,600	187.9
3	400kWh초과	7,300	280.6

○ **(기대효과)** 금번 주택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으로 **기존보다 요금부담이 증가하는 가구**는 없으며, 가구당 **연평균 11.6%, 여름·겨울 14.9%**의 전기요금 인하효과가 기대됨

* 평상시 월 350kWh를 사용하는 4인가구의 전기요금은 62,910원에서 55,080원(부가세, 기반기금 포함)으로 7,830원 인하되고, 여름철 에어컨 가동에 따라 600~800kWh로 전기사용이 증가해도 이전보다 전기요금 부담이 크게 경감됨

· **(600kWh 사용시)** 217,350원 → 136,050원, **(800kWh 사용시)** 378,690원→199,860원

□ 주택용 누진제 완화와 병행하여 **'주택용 절전할인 제도'**와 **'슈퍼유저 제도'**를 새로이 도입하여 **전기소비절약을 유도**할 예정임

○ **(절전할인 제도)** 당월 사용량을 직전 2개년 동월과 비교하여 **20% 이상 감축한 가구**에 대해서는 **당월 요금의 10%를 할인**

* 여름(7~8월), 겨울(12~2월)에는 **15%를 할인**

○ **(슈퍼유저 제도)** 여름(7~8월), 겨울(12~2월)에 한하여 1,000kWh를 초과하는 사용량에 대하여 **기존 최고요율인 709.5원/kWh을 부과**

□ 아울러, 검침일 등 **주택용 전기요금 집행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**도 합리적으로 개선키로 함

○ **(검침일 차이) 희망검침일 제도를 모든 가구로 확대 시행**하고, 2020년까지 AMI를 조기 구축하여 근본적인 해결을 추진

* '16.9월부터 AMI 보급가구 및 아파트 대상으로 부분 시행 중

○ **(다가구 주택)** 희망주택을 대상으로 **가구별 계량기** 설치를 한전이 지원

* 전체 사용량 기준으로 누진제를 적용하여 요금부담이 증가하는 문제 해결

○ **(주거용 오피스텔)**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이 일반용 요금이 아닌 주택용 요금을 납부하도록 **분기별 1회 주기적 단속** 실시

□ 장기적으로 **주택용에도 계절·시간대별 차등요금제를 도입**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할 계획임

○ AMI 보급이 완료되는 **2020년까지 소비자가 계시별 요금제와 누진제를 선택**할 수 있도록 계시별 요금제를 단계적으로 확대

❷ 사회적 배려계층 할인 확대

□ 취약계층 등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혜택을 현재 2,500억원 규모에서 **2배 수준으로 대폭 확대**함

○ **(취약계층)**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**필수사용량을 보장**할 수 있도록 할인금액을 현행 **월 8천원에서 월 1만6천원으로 2배 확대**

* 하계에는 냉방권 보장을 위해 할인금액을 2만원으로 증액

지원 대상	현 행	개 편
장애인 등	월 8천원	월 1만6천원(하계 2만원)
기초생활수급자	월 8천원	월 1만6천원(하계 2만원)
차상위계층	월 2천원	월 8천원(하계 1만원)

○ **(다자녀·대가족·출산 가구) 다자녀·대가족 가구**에 대한 요금 할인율을 **30%로 확대**하고, **출산가구**에 대한 **요금할인도 신설**

지원 대상	현 행	개 편
3자녀 이상	20%할인 (월 1만2천원 한도)	30%할인 (월 1만6천원 한도)
대가족	한 단계 낮은 요율 (월 1만2천원 한도)	
출산가구	-	

○ **(사회복지시설)** 경로당·복지회관·어린이집 등 할인율을 현행 **20%에서 30%로 확대**

지원 대상	현 행	개 편
사회복지시설	20%할인	30%할인

❸ 교육용 요금 할인 확대

□ 해마다 반복되는 찜통교실·얼음장교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**전국 12,000여개 초·중·고교 전기요금을 20% 할인**

○ **(기본요금 적용방식 변경) 연중 최대 피크치를 매월 적용**하던 방식에서 **당월 피크치를 당월요금에 적용**하는 방식으로 전환

○ **(동하계 사용량 요금할인)** 동·하계 냉난방기 사용량(동하계 소비량 - 직전 3개월 평균 소비량)에 대한 **할인율을 15%에서 50%로 확대**

□ 2020년까지 **전국 3,400개교에 학교 태양광 사업**을 추진하여 **전기요금부담**을 추가로 **11% 경감**

○ 구체적으로 한전이 출자한 SPC가 학교 옥상에 태양광을 설치하면 옥상 임대료 대가로 **연 4백만원 수준의 전기요금을 할인**

□ **유치원**도 **초중고교와 동일한 방식**의 요금할인 혜택을 부여함

❹ 친환경 투자 요금할인 인센티브

□ '17~'19년간 에너지저장장치(ESS), 신재생에너지, 전기차 등 親환경 에너지설비 투자에 대하여 **3년간 약 2천억원 규모의 요금할인 특례**가 운영됨

에너지저장장치(ESS)	▪ 경부하시간대 충전전력 할인율 확대 (現 10→50%) ▪ 기본요금 할인 확대 (現 피크감축량의 1배 → 3배) * 계약전력 대비 ESS 설치용량 비중이 클수록 높은 할인율 적용
신재생에너지 설비	▪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한 산업체·빌딩의 요금 10% 할인 * 전체 소비량 중 신재생 발전량 비중이 클수록 높은 할인율 적용
전기자동차 충전설비	▪ 기본요금을 면제하고, 전력량 요금 50% 할인

3 금번 전기요금 체계 개편으로 주택용 1조2천억원, 교육용 1천억원, 친환경 투자 인센티브 2천억원(3년간) 등 **매년** 평균 **1.4조원의 국민부담 경감**이 예상됨

❶ 가정

【 사용량별 개편전후 주택용 전기요금(月) 부담 변동(부가세, 기금 포함) **】**

사용량	개편전	개편후
400kWh	78,850원	65,760원
600kWh	217,350원	136,040원
800kWh	378,690원	199,850원

❷ 사회적 배려계층

【 사회적 배려계층 주택용 전기요금(月) 부담 변동(부가세, 기금 포함) **】**

구 분	개편전	개편후
다자녀가구 (평균 340kWh 사용)	47,770원	37,050원 (22%↓)
기초생활수급자 (평균 216kWh 사용)	17,350원	8,260원 (52%↓)

❸ 학교

【 학교당 평균 전기요금(年) 부담 변동(부가세, 기금 포함) **】**

개편전	개편후
4,043만원	3,241만원 (20%↓)

❹ 친환경 투자

【 친환경 투자 유형별 기대효과 】

구 분	기대 효과
ESS	ESS 투자비 회수기간 단축 : 6년 → 4.6년
전기차	전기차 운행비용 감소 : 연간 40만원 → 13만5천원

4 새로운 요금표는 가정, 사회적 배려계층, 초중고교, 유치원의 난방비 부담경감을 위해 **12월1일부터 소급 적용**됨 (* 친환경 투자 특례는 내년부터 시행)

○ **전기구입비 연동제 등 중장기 제도개선 과제**에 대해서는 **내년 중 국제컨설팅, 관계부처 협의** 등을 거쳐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임. 끝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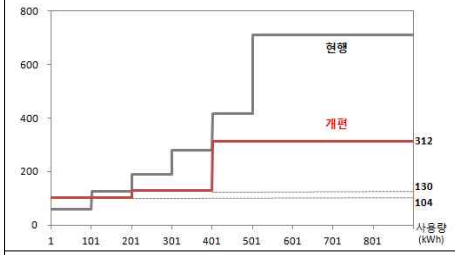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진흥과 김양지 서기관(☎044-203-5262), 김태현 사무관(☎5264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【 참고 1 】 누진제 개편 대안

(제1안) 누진제 원리에 근접한 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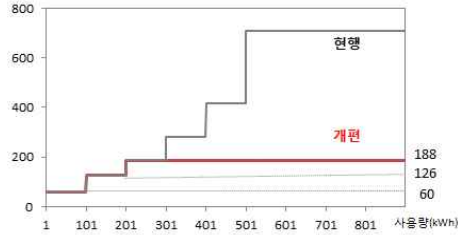
- **(구간)** 1구간은 필수사용량(200kWh), 2구간은 평균사용량(400kWh)
- **(요율)** 선진국 사례등을 참고하여 중간요율을 평균 판매단가(130원/kWh) 수준으로 설정하고, 1단계 요율은 중간요율의 80% 수준으로 적용



- 1단계 : 104원/kWh(평균단가의 80%)
- 2단계 : 130원/kWh(평균단가)
- 3단계 : 312원/kWh(1단계의 3배)

(제2안) 최대한 현 체계를 유지하는 안

- 기존 1, 2단계는 현행대로 유지하고, **여름철의** 충분한 냉방권을 보장하도록 **3단계 이상 구간**(201kWh~)**을 3단계 요율로 통합**



- 1단계 : 60.7원/kWh(現 1단계 요율)
- 2단계 : 125.9원/kWh(現 2단계 요율)
- 3단계 : 187.9원/kWh(現 3단계 요율)

(제3안) 절충안

- **(구간)** 1구간은 필수사용량(200kWh), 2구간은 평균사용량(400kWh)
- **(요율)** 1단계는 現 1~2단계 평균요율(93원/kwh)을 적용하고, 2단계는 現 3단계 요율(188원/kwh)을 적용
  - 1단계 부담증가 상쇄를 위해 1단계 가구에 월**4천원의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제도** 도입



- 1단계 : 93.3원/kWh(現 1~2단계 평균요율)
- 2단계 : 187.9원/kWh(現 3단계 요율)
- 3단계 : 280.6원/kWh(現 4단계 요율)

【 참고 2 】 국회, 공청회 등의 주요 의견 및 반영 결과

❶ **(주택용 누진제)** 국회, 공청회 등 의견수렴 결과 모두 3안을 지지

* **(국회)** 산업위, 에너지소위 등을 통해 3안 지지 입장을 표명

* **(공청회)** 소비자 단체, 전문가 등의 패널들은 소비자간 형평성과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장점이 있고 적정수준의 요금을 부담하게 되는 3안을 공통적으로 지지

⇨ **국회, 소비자단체 등 각계각층의 공감대를 이룬 3안으로 개편 추진**

❷ **(사회적 배려계층 지원)** 지원한도 확대 등 최대한의 지원을 요청

⇨ **취약계층에 대한 요금할인 지원규모를 2배 수준으로 확대**

❸ **(교육용 요금)** 초중고교에 대한 **기본요금 산정방식 변경건의** 및 **동·하계 전력 사용량에 대한 할인 확대** 등을 요청

* **(국회, 교육청 등)** 연중 최대 피크치를 매월 적용하던 방식에서 **당월 피크치를 당월 요금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전환**해 줄 것을 요청

⇨ **기본요금 산정방식 개편 및 동·하계 할인율 확대 등으로 초중고교 전기요금의 20%를 할인**

❹ **(수요관리 및 신재생 활성화)** 누진제 개편에 따른 수요증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수요관리 강화 및 신재생 활성화 등의 필요성 제기

⇨ **동계 전력수급 대책**(12.12日) **및 신재생 활성화 계획**(11.30日) **旣 발표**

⇨ **'ESS·신재생·전기차 특례 요금할인 제도', '절약가구 인센티브 제도', '슈퍼유저 제도' 등 신설**